

일본 대도시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atterns of Support Exchang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Children in Metropolitan City in Japan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임 효 연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jong Cyber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HyoYeon Lim

◀ 목 차 ▶

I. 서론	IV. 논의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patterns of support exchange between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children in a metropolitan city in Japan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tterns of support exchange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he sample was collected from 1,020 the elderly living alone in Osaka city selected with random sampling method. The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respondents, who were asked to send them back. The response rate was 51.7%(n = 526). We used 371 sample of respondents who have children. The results indicated that:(1)the patterns of support exchange were different by the types of social support, (2)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ho had an appropriate balance of a support exchange patter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ife satisfaction of those who had low support exchange or only provided supports to their children. The findings imply that an appropriate balance of support exchange between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children was crucial in improv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주제어(Key Words) : 독거노인(the elderly living alone),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교환형태(exchange pattern),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HyoYeon L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jong Cyber University, 111-1 Gunja-dong, Gwangjin-gu, Seoul, 143-150, Korea Tel: +82-2-22-4-8091 Fax: +82-2-2204-8036 E-mail: jellyhy@sjcu.ac.kr

* 이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I. 서론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율 7%를 넘어 1994년 14%, 2008년에는 22%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부부 세대와 독거노인의 증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판 국민위생의 동향에 따르면 독거노인, 즉 노인 단독세대수는 2005년에 405만 9천 세대이며, 1995년의 219만 9천 세대에 비교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거의 2배의 증가를 보였다(후생통계협회, 2006). 이러한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2020년에는 남성독거노인이 176만명, 여성독거노인이 350만명으로 총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直井道子, 2003). 이와 같이 독거노인이 증가한 배경에는 첫째,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 부모·형제와의 사별 및 별거, 자녀의 취직·결혼 등의 동거가족 사정에 의한 요인이 있으며, 둘째, 미혼에 의한 요인, 셋째, 동거하던 가족과의 인간관계 악화 등의 사회관계에 의한 요인, 넷째, 집이 좁다 등의 주택사정이나 자녀와 동거하면 이사를 해야 해서 함께 살지 않는다 등의 물리적 사정에 의한 요인, 다섯째,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다 등의 의식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松本清子, 東條光雄, 2001).

2001년 일본에서 책정된 고령사회대책대강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고령자의 자립지원」을 제안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내각부에서는 앞으로 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노인의 유형을 3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독거노인」이다(直井道子, 2003). 이러한 동향에서 독거노인을 노후생활의 하나의 생활유형으로 간주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상 독거노인들은 '긴급상황의 대한 대처 등 생활상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만 자녀들의 부양 의식의 약화에 따른 부양부담을 덜기위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거로 살고 싶다'는 의식을 가진 노인이 많다는 점에서(矢川ひとみ, 2005) 앞으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독거노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즉,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은 다양한 각도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黑田裕子, 1992),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생활만족도가 있다(Larson, 1978; Lawton, 1983). 생활만족도는 노인 스스로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Graney, 1975; 福井貞, 2006), 또한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대한 판단이므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古谷野巨, 1984).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의 건강상태(Abu-Bader, Rogers, & Barusch, 2002), 소득수준(Kuhelen, 1984), 배우자의 유무(古谷野巨, 岡本清子, 安藤孝, 1995), 사회참가(横山博子, 1989), 사회적 지원(Abu-Bader et al., 2002; 熊野光英, 王治文, 1999) 등이 밝혀져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지원은 재가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질병이나 생활사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발생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어 있다(淺野達人, 2003). 또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연구(富田眞佐子, 高崎絹子, 萬田良子, 2001)도 보고되어, 재가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사회적 지원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노인에게 있어 비공식적 지원의 주요한 제공자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장인협, 우국희, 2001).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족의 지원이 노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높인다는 연구들(柳澤理子, 馬場雄司, 伊藤千代子, 2002)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애정,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나는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중돈, 조주연, 2000). 또한 일본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고독에는 자녀와의 접촉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湯澤雅彦,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Mancini, 1980).

자녀와의 질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을 검토한 일본의 선행연구들로는 다음과 같다. 남성 노인은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양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으나 여성노인에서는 관련이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金惠京, 1997),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柳澤理子 외, 2002), 손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서로간의 주고 받는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질에 높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三浦正江, 上理一郎, 2006)들이 이루어졌으나, 이들은 독거노인에 한정된 연구가 아니며,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 혹은 손자녀의 범주로 묶어 지원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 별거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으며 그 관계가 노인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지원을 받는 것보다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이 삶의 질이 높인다는 연구(金惠京, 杉澤秀博, 岡林秀樹 1999)와 지원을 주고 받는 것의 균형이 유지될 때 노인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김정석, 김익기, 2000; 金惠京, 甲斐一

郎, 久田満, 2000),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노인을 보는 관점의 다각적인 측면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교환이론에서 말하는 상호호혜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며, 실제 노인은 보상관계 교환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장인협, 1993). 노인문제는 노인이 갖고 있는 교환자원의 가치가 저하됨으로써 교환관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러한 불균형은 노인으로 하여금 개인, 집단 또는 사회에 의존케 함으로써 노인은 권력 의존의 관계로 만들어진다. 즉 권력의존은 노인의 지위를 하락하기 때문에 노인의 지위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된 관계가 요구된다(장인협, 1993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균형이 아닌 균형을 갖게 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의 정적 관계를 인지할 수 있으며 노인을 지원의 수혜자로서 초점을 두지 않고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은 노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생각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개념이나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거주형태에 초점을 맞춰 생활만족도와 함께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과 자녀와의 질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원의 교환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을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의 독거노인의 재가생활과제를 모색해가는 데에 중요한 제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지원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파악해 그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일본 대도시 거주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별 교환 형태의 경향을 살펴보고, 2)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 지원의 지원 형태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러한 일본의 독거노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저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대도시의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우리의 미래상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대상자는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1,020명이다. 표본은 오사카 시 24구를 인구비례로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으로부터 하나의 구(區)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각각 추출된

구(합계 5구)의 65세 이상의 인구구성비율을 반영하여 주민 대장에서 1,020명의 독거노인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회수율을 51.6%(526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371명을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조사시기는 2006년 4월 1일에서 30일까지였다.

우편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협력의뢰문서를 통해 협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좋다는 점과, 회수된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처리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협력이 얻어진 경우에는 조사표를 무기명으로 회신용 봉투에 넣어 반송하도록 의뢰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2. 조사항목

1) 사회인구학적 변수

독거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 연령, 독거기간, 최종학력, 주관적 건강도, 경제상황, 주된 생계수단, 자녀유무, 자녀와 별거이유(자녀가 있는 경우)를 질문했다.

2)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척도는 野口裕二(1990)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일부 수정을 통해 작성한 것이다. 「자녀로부터의 수단적 지원의 수령」에 대해서는 “내가 몸이 아플 때 자녀는 간병이나 수발을 들어준다”, “내가 가사나 외출로 곤란할 때 자녀가 도와준다”의 2문항을, 「자녀에게 수단적 지원의 제공」에 대해서는 “자녀가 몸이 아플 때 간병이나 수발을 해준다”, “자녀가 가사나 외출로 곤란할 때 도와준다”의 2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수령」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자녀는 상담을 들어준다”, “자녀는 나를 배려하고 생각해 준다”의 2문항을,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의 제공」에 대해서는 “자녀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내가 상담을 해준다”, “나는 자녀를 배려하고 생각해 준다”의 2문항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를 1점(거의 없다)에서 4점(자주 있다)의 4단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질문문항에 대해서는 노년학 영역의 연구자의 감수를 받아 내적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각 영역의 신뢰도는 「자녀로부터 수단적 지원의 수령」이 .87, 「자녀에게 수단적 지원의 제공」이 .79,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의 수령」이 .87,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의 제공」이 .76으로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형태의 분류는 표1과 같다. 구체적으로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각각의 지원 특점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고위군][저위군]으로 나누어 [쌍방향(수령고위군&제공고위군)], [제공우위형(수령저위군&제공고위군)], [수령우위형(수령고위군&제공저위군)], [저교환형(수령저위군&제공저위군)]의 4가지 형태로 분류했다¹⁾. 또한 기준이 된 평균치(8점 만점)는 자녀로부터의 수단적 지원의 수량이 4.52점, 자녀에게 수단적 지원의 제공이 3.76점,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수량이 5.76점,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의 제공이 5.00점이었다.

〈표 1〉 지원 교환 형태의 분류

지원 교환 형태	지원 제공		
	고위군	쌍방향	수령우위형
지원 수량	고위군	쌍방향	수령우위형
	저위군	제공우위형	저교환형

3)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Sauwer와 Warland(1982)에 의해 개발된 1항목 척도를 사용하였다(福井貞, 2006에서 재인용). 질문항목의 내용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였으며, 매우 불만이 있다(1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이었다. 사람의 생활은 본래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항목적도로 생활만족도가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응답하기에 부담이 적도록 하고, 1항목 척도로도 대상자의 생활전체에 대해 심리적 반응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됨에 따라 (Sauwer & Warland, 1982) 1항목 척도를 사용했다. 또한 須貝孝一, 安村誠司와 藤田雅美(1996)은 다항목 척도가 생활의 구성요소를 연구자의 틀에서 설정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어, 노인 자신이 생각하는 생활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1항목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3. 분석방법

1)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형태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 정서적 지원의 교환형태 각각의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2)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와 생활만족도와와의

1) 위에서 말하는 지원교환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쌍방향은 자녀와의 지원의 상호교환에 있어 주고 받는 정도가 평균이상의 그룹이며, 제공우위형은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보다는 주는 정도가 많은 그룹이다. 수령우위형은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평균이상으로 받고 있으나 제공은 평균이하인 그룹이며, 저교환형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원을 주고 받는 정도가 평균이하인 그룹을 의미한다.

관련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 정서적 지원의 교환형태를 독립변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은 남성이 133명(25.5%), 여성이 385명(74.5%)이었다. 평균연령은 남성이 73.2세, 여성이 74.5세였으며, 평균독거기간은 남성이 15.7년, 여성이 13.7년이었다. 최종학력을 보면, 남녀모두가 중학교 졸업이 50%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40%정도였다. 주관적 건강도에서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와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의 부정

〈표 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속성	N(%)	
	남성(N = 133)	여성(N = 385)
성	133(25.5)	385(74.5)
연령(평균연령±SD)	73.2세 ± 6.0	74.7세 ± 6.4
독거기간(평균독거기간±SD)	15.7년 ± 12.4	13.7년 ± 10.5
최종학력		
중학교	65(49.2)	191(50.4)
고등학교	56(42.4)	158(41.7)
단기대학(2년제)	6(4.5)	20(5.3)
대학교(4년제)	4(3.0)	4(1.1)
기타	1(0.8)	6(1.6)
주관적 건강도		
전혀 건강하지 않다	18(13.5)	25(6.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5(41.4)	118(31.1)
건강한 편이다	59(44.3)	214(56.2)
매우 건강하다	1(0.8)	23(6.1)
경제상태		
상	1(0.8)	3(0.8)
중	48(37.8)	195(54.0)
하	78(61.4)	163(45.2)
주된 생계수단		
취로에 의한 수입	4(3.1)	14(3.8)
연금	98(77.2)	305(83.8)
자녀로부터의 원조	5(3.9)	6(1.6)
저축/재산수입	2(1.6)	21(5.8)
생활보호	16(12.6)	17(4.7)
기타	2(1.6)	1(0.3)
자녀 유무		
있다	82(70.7)	286(82.9)
없다	34(29.3)	59(17.1)
자녀와 별거 이유(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하니까	11(14.9)	61(22.7)
따로 사는 게 편하므로	33(44.6)	101(37.5)
지금 사는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4(5.4)	37(13.8)
자녀의 직장사정으로	5(6.8)	22(8.2)
주택 사정으로	12(16.2)	20(7.4)
부모자녀간의 생각과 생활방식이 다르므로	5(6.8)	19(7.1)
기타	4(5.4)	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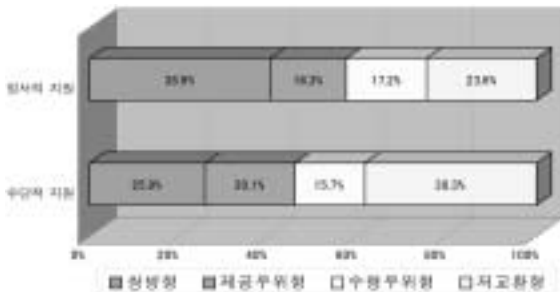
적인 응답이 남성의 54.9%와 여성의 37.7%에서 보여졌으며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긍정적인 응답은 남성의 45.1%와 여성의 62.3%였다. 다음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남성 독거노인은 상(0.8%), 중(37.8%), 하(61.4%), 여성 독거노인은 상(0.8%), 중(54.0%), 하(45.3%)로 남성은 “하”로 응답한 자가 여성은 “중”으로 응답한 자가 가장 많았다. 주된 생계수단을 물어본 결과, 남녀 독거노인 모두 연금이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녀 유무에 대해서는 여성의 82.9%, 남성의 70.7%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자녀가 있는 노인에게 자녀가 있으면서 독거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따로 사는 게 편하므로”를 남성의 44.6%, 여성의 37.5%가 선택해 남녀모두에게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성은 “주택사정으로”(16.2%)와 “건강하니까”(14.9%)를 독거이유로 응답하였고, 여성은 “건강하니까”(22.7%)와 “지금 살고 있는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13.8%)의 순으로 독거이유에 대해 응답하였다.(표 2).

2. 자녀와의 지원교환 형태의 경향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 형태를 그림1에 나타냈다.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지원 교환 형태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단적 지원 교환 형태, 정서적 지원 교환 형태에 있어 각각의 기술통계를 구했다. 그 결과, 수단적 지원 교환 형태에서는 저교환형(38.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쌍방향형(25.9%), 제공우위형(20.1%), 수령우위형(15.7%)의 순이었다. 반면에 정서적 지원에서는 쌍방향형(38.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교환형(23.6%), 수령우위형(17.2%), 제공우위형(16.3%)의 순이었다. 즉, 수단적 지원에 있어서는 자녀와의 사이에서 지원을 그다지 주고받지 않는 형태의 독거노인이 가장 많았으나,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는 자녀와 서로 활발히 지원을 주고받는 독거노인이 가장 많아 사회적 지원의 내용에 따라 자녀와의 교환 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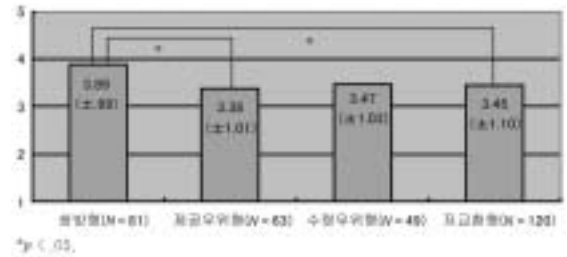
3. 독거노인과 자녀와의 지원교환 형태와 생활만족도의 관련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 형태와 생활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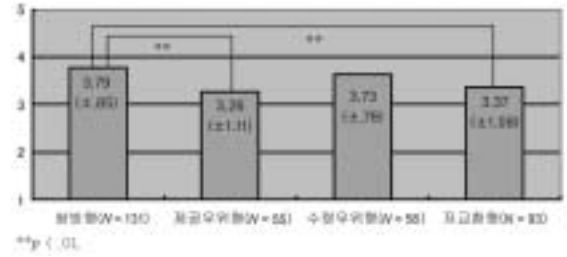


〈그림 1〉 자녀와의 지원교환 패턴의 경향

도의 관련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단적·정서적 지원의 교환 형태를 독립변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와 생활만족도($p < .01$), 정서적 지원의 교환형태와 생활만족도($p < .001$)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 정서적 지원의 교환형태 모두에 있어 [쌍방향]의 노인과 [제공우위형]의 노인들 사이에서, 또한 [쌍방향]의 노인과 [저교환형]의 노인들 사이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즉, 수단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은 자녀와의 사이에서 지원을 서로가 풍부하게 주고받는 독거노인이 자녀로부터 지원은 적게 받고 자녀에게 지원은 많이 하는 독거노인보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더불어 자녀와의 사이에서 지원을 서로가 풍부하게 주고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자녀와의 사이에서 그다지 지원을 받지도 지원을 주지도 않는 노인에 비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림 2〉 자녀와의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에 따른 생활 만족도



〈그림 2〉 자녀와의 수단적 지원의 교환형태에 따른 생활 만족도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이 평소에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사회적 지원의 교환 형태를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사회적 지원의 교환 형태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이 평소에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교환 형태의 경향

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지원의 내용에 따라 교환 형태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지원을 수령하고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쌍방향」의 독거노인의 비율이 많았으며(38.9%), 한편 자녀와의 사이에서 수령도 제공도 별로 하고 있지 않는 「저교환형」은 수단적 지원의 교환 형태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38.3%).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 지원의 경우, 제공자의 부담이 많지 않는데 반해 수단적 지원은 많든지 또 적든지 제공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淺野達人, 2003), 정서적 지원이 고령자에게 있어 실제로 교환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이 된다. 더불어 수단적 지원의 교환에는 실제로 접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주 근접성(residential propinquity)이 자녀와 별거하는 독거노인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녀와 별거하기 때문에 수단적인 지원은 서로 주고받는 데 한계가 있으나, 정서적 지원에는 그러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독거노인의 평소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 형태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와의 사이에서 많은 지원을 주고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자녀에게 지원 제공만 많이 하고 있는 노인과 부모자녀 간에 지원 교환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지원을 둘러싼 세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호혜성(reciprocity)은 성공적인 노화에 필수이며 어떠한 방향이든 일방적인 지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Antonucci, 1990; Dowd, 1975). 특히 노년기가 되어서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노년기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모자녀 간에 지원을 풍부하게 교환하고 있는 노인이 그다지 지원교환이 없는 노인에 비해 자존감과 생활충실감이 높다(三浦正江, 上理一郎, 2006)는 결과도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독거의 형태로 생활하는 노인일지라도 자녀와의 사이에서 단순히 지원의 균형 잡힌 상태만이 아니라, 쌍방의 활발한 지원의 교환이라는 부모자녀 간의 적극적인 관계형성이 독거노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유교적 문화권의 영향에 놓여있다고는 하나,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일본은 복지정책에 있어 가족의 책임과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일본형복지론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해 왔으며, 이에 반해 한국은 경료효친사상이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왔다(權玆珠, 2003). 이와 같이 노인복지를 둘러싼 기본적인 효에 대

한 공통가치관을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전개함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여 온 한국과 일본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양국에 제시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자녀와 사회적 지원의 교환을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녀와의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사회심리적인 거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평소에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는 독거노인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거하고 있더라도 자녀와의 사이에서의 호혜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접촉을 통해 정서적 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독거노인의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직²⁾은 독거노인의 생활을 사정함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독거노인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사회복지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복지에 기여하는 지역사회기관에서 더욱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약 80%가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도 따로 사는 게 편하다는 의식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이 뒷받침되어 독거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교육적인 수준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노인의 17.9%가 독거노인으로 나타나 전체노인 가운데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07년 883,378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소득은 25.4만원으로 경제적인 수준은 매우 낮으며, 70%가 국졸이하로 교육수준에서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일본 독거노인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선택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앞으로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와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확보된 현재의 40대, 50대가 노인세대로 들어

2)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의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과 제택개호지원센터의 소셜워커,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소셜워커 및 넓게는 지자체의 독거노인생활지원센터 등의 인력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

셨을 경우에는 일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해 질 것이며 자녀에게 부양적인 면에서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것처럼 향후 늘어날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이 보다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수단적 지원이라는 관계에 있어 쌍방의 밸런스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노년기 가족관계를 한층 보완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으로의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노인복지정책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³⁾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사회생활상의 지원 책임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가족들의 수발 및 케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대상이 노인인구의 4%수준에 지나지 않아, 중증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단계의 노인과 그 가족만이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이 강화되어 노인의 부양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가족이 와해되는 것을 막고 가족 간의 관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더욱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노년기 가족을 위해 수단적인 지원을 보강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인 교류를 풍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제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김기태, 박봉길, 2000; 허선영, 2003), 노년기 자녀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에는 노년기의 자녀와의 세대간 호혜성에 자녀와의 동거여부, 즉 독거가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정병은, 2007), 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영향이 없다는 연구(윤현숙, 2003)등이 제시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향후 한국의 중산층 노인들이 혼자서 생활하는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산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시하겠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특정 대도시 독거노인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본의 독거노인에게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후속연구를 통해 농촌의 독거노인과의 비교연구도 검토되어 진다.

둘째,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관계와 생활만족도의 관련을 통해 독거노인의 지원과제를 검토하였으나, 추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련하는 요인들 중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척도를 통한 분석과 함께 이에 관련하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지원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측면이 삶의 질에 관련하는 통제변인을 설정하고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의 조사 설계는 횡단적인 설계이며 탐색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앞으로 종단적 연구와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김기태, 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방-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20(1), 153-168.

김정석, 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윤현숙(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28.

장인협(1993).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장인협, 우국회(2001). **케어·케이스 매니지먼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정병은(2007).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서울 지역 노인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7(2), 503-518.

허선영(2003).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Abu-Bader, S. H., Rogers, A., & Barusch, A. S.(2002).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Frail Elderly.

3) 일본의 Long Term Care Insurance인 개호보험은 2000년 4월 일본의 노인인구가 17.3%에 달하는 시기에 시작이 되었으며, 개호(수발 및 간병)가 필요로 하는 정도를 등급 판정받아 등급별로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시작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델이 되었다.

-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8(3), 3-17.
- Antonucci, T. C.(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Binstock R.H. and L.K. George(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Academic Press.
- Dowd, J. J.(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584-594.
- Graney, M. J.(1975).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g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6) 701-706.
- Kuhelen, R. G.(1984). Developmental Change in Motivation during the years: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The Univ. of Chicago Press.
- Larson, R.(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1), 109-125.
- Lawton, M. P.(1983). Environment and Other Determinants of Well-Being in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3(4), 349-357.
- Mancini, V. A.(1980). Friend interaction, Competence and moral in old age. *Research on Aging*, 2, 416-431.
- Sauwer, W. J., & Warland, R.(1982). Morale and life satisfaction. In D.J. Mangen and W.A.Peterson (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1, Clinical and Social Psychology*, NW: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240.
- 淺野達人(2003). 第Ⅵ章 高齢期の人間関係 古谷野亘 編, **新 社會老年學(第1版)**. 東京: (株)ワールドプランニング.
- 權汝珠(2003). 日本と韓國における大都市在宅高齢者のに對するソーシャルサポート選好, 大阪市立大學校博士學位請求論文.
- 金惠京(1997). 農村在家高齢者におけるソーシャルサポート授受とQOL-韓國および 日本での追跡研究-. 東京大學大學院博士學位請求論文.
- 金惠京, 杉澤秀博, 岡林秀樹(1999). 高齢者のソーシャルサポートと生活満足度に関する縦斷研究. **日本公衆衛生學會誌**, 46(7), 532-541.
- 金惠京, 甲斐一郎, 久田 瀧(2000). 農村在家高齢者におけるソーシャルサポート授受と主觀的幸福感. **老年社會科學**, 22(3), 395-404.
- 熊野光英, 王治文(1999). 高齢者の生活満足度に關聯する要因の検討. **日本リハビリテーション醫學**, 36(12), 1017-1018.
- 黒田裕子(1992). クオリティ・オブ・ライフ(QOL):その概念的側面. **看護研究**, 25, 2-10.
- 古谷野亘, 岡本清子, 安藤孝(1995). 都市中高年の主觀的幸福感と社會關係に關聯する 要因. **老年社會科學**, 16(2), 115-124.
- 古谷野亘(1984). 主觀的幸福感の測定と要因分析. **社會老年學**, 20, 59-64.
- 須貝孝一, 安村誠司, 藤田雅美(1996). 地域高齢者の生活全體に對する満足度とその 關聯要因. **日本公衆衛生誌**, 43(5), 374-389.
- 玉野和志, 前田大作, 野口裕二(1989). 日本の高齡者の社會的ネットワークについて. **社會老年學**, 30, 27-36.
- 福井貞(2006). 要援護在家高齢者の感じる日常生活における困りごとと生活全體 満足度との關聯. **ケアマネジメント學**, 5, 73-83.
- 富田眞佐子, 高崎絹子, 萬田良子(2001). 在家で療養している一人暮らし高齢者のQOL に關聯する要因. **高齢者のケアと行動科學**, 8(1), 50-59.
- 内閣府(2006). 世帯類型に応じた高齢者の生活實態に關する意識調査. 高齢社會白書.
- 直井道子(2003). 一人暮らしの指標. **保健の科學**, 45(12), 882-886.
- 野口裕二(1990). 高齢者のソーシャルサポート:その概念と測定. **日本社會事業大學 社會事業研究所年報**, 32, 23-30.
- 松本清子, 東條光雄(2001). 一人暮らし高齢者へのソーシャルサポートと精神的健康の關聯性. **日本保健福祉學會誌**, 7(27), 81-89.
- 三浦正江, 上理一郎(2006). 高齢者におけるソーシャルサポート授受と自尊感情, 生活充實感の關聯. **カウンセリング研究**, 39(1), 40-48.
- 矢川ひとみ(2005). 要介護常態にある獨居高齡者の生活實態. **松山東雲女子大學人文 學部紀要**, 13, 115-134.
- 横山博子(1989). 主觀的幸福感と活動の關係について. **老年社會科學**, 11, 151-166.
- 湯澤擁彦(1986). 老人の孤獨と家族との關係. **臨床精神醫學**, 15, 1773-1778.
- 柳澤理子, 馬場雄司, 伊藤千代子(2002). 家族および家族外からのソーシャルサポート と高齢者の心理的QOL. **日本公衆衛生學會誌**, 49(8), 766-773.

접수일: 2009년 4월 8일

심사시작일: 2009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2009년 5월 11일